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지백봉사대회

한국의 Happy Maker

| 일시 |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2:00 ~ 오후 5:15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한국의 Happy Maker

지역봉사대회

인/사/말



김 삼 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지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기조강연 	9
“지역교회 자원봉사 활성화”	
_ 김현숙 소장(서초자원봉사센터)	
사례발표 1 	17
“강서교회연합자원봉사단 사례 발표”	
_ 이오석 목사(강서교구협의회 사무총장, 호서교회 담임목사)	
사례발표 2 	28
“기독교 부산지역자원봉사단 사례발표”	
_ 최 구 영 목사(수석총무, 백향목)	
종합토론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지역봉사대회

1. 일 시 : 2010. 10. 14(목) 오후 2:00 ~ 오후 5:15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
3. 주 제 : “한국의 Happy Maker”

순서	시간	구분	내용
제1부	예 배		
	14:00~14:05	INTRO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영상”
	14:05~14:40	예 배	설교 : 이명선 목사(제천명락교회)
제2부	세 미 나		사회 : 김길구 사무총장
	14:40~15:10	기조 강연	“지역교회 자원봉사 활성화” 김현숙 소장(서초자원봉사센터)
	15:10~15:40	사례 발표1	강서구 지역자원봉사단
	15:40~16:10	사례 발표2	기독교부산지역자원봉사단
	16:10~16:40	종합 토론	
제3부	비 전		사회 : 김종생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16:40~16:55	찬 양	여의도순복음교회 굿피플 찬양팀
	16:55~17:10	지회 소개	“전국 지회 임원 소개”
	17:10~17:15	미션 선언	“우리의 사명”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지역교회 자원봉사 활성화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김 현 숙 소장

I. 들어가는 글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생활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러한 정보에 둔감하게 되면 마치 스스로 낙후되고 소외된다고 느껴져 무언가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은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결코 여유를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만족은 없는 것이다. 나와 관련된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의 욕구에 몰입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를 벗어나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남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전에 공익광고에서 신문배달원이 떨어뜨린 신문을 대신 던져 넣어주고 야근한 후배직원에게 커피 한 잔 타주는 등 가까운 이웃을 돕는 일은 1분 밖에 안 걸린다는 광고가 있었다. 1분 정도의 도움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누구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봉사는 누구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되어지는 즉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II. 자원봉사의 의미와 범위

1. 자원봉사의 의미

유엔은 “자원봉사활동이란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 이외에 개인이나 공동체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핵심 개념은 자유 의지적 선택의 의미로써 ‘자발성’,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대가성, 타인이나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공익성’은 자원봉사의 3대 특성이며, 자원봉사활동도 보수를 받는 ‘일’과 같이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가치교환이 아니고 대가를 받지 않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3대 특성 이외에 ‘상호호혜’를 추가하기도 한다. 그 혜택이란 봉사를 통하여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고,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으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히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넓히게 되고,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원봉사의 현상학적 필요성

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적 필요

인간사회에는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으며, 이들을 돕는 정부의 힘이 충분한 적은 없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 뒤늦은 문제발견 등 구조적인 문제와 산업전환기에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복지수요와 공급의 틈새를 메우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서로 ‘함께 사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의 목표이고 자원봉사의 목표이다.

나. 인간의 심리적 욕구

자원봉사는 개인적으로 여러 혜택이 있는데, 기술 습득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직업선택에도 도움이 되고,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이 개발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봉사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좋은 사귄과 나눔의 장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활동을 통해 동료자원봉사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하게 되고 자존감이 고양되며,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다. 정부와 시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틈새공급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빈틈의 욕구나 문제를 돕는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라. 생태계의 위기

인간이 누리는 삶의 조건은 사회생태계와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로 인하여 더할 나위없이 악화되어 있다. 극심한 구직난, 교통난, 열악한 주거, 교육 및 작업환경, 높은 범죄율과 부정부패 그로 인한 높은 불만과 불신, 자연생태계의 오염, 지구온난화, 인간성 상실 등은 생명체 또는 지구에 대한 총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기업의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고 공통된 목표인 생태계 재생에 시민 각자의 자발적 노력 즉 자원봉사가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3. 자원봉사 활동분야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 활동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15개 분야이다. 그러므로 자원봉사 활동분야란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망라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사회 혹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적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III. 기독교적 명제, 자원봉사

현대인들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반면 그러한 물질문명으로 인해 행복한 인간의 삶의 저해하는 많은 부작용 즉 개인과 사회적 가치의 부재, 인간소외, 가정해체, 알콜 및 마약중독, 각종 사회 및 환경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광범위하게 산적한 문제들을 국가만이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요청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지역주민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기독교적 명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교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8-39)”라는 지상최대의 계명을 따라 지역주민에게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 봉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교회는 봉사는 신앙의 부수적이며 봉사에 투자하는 노력과 비용에 비하여 전도에 효과가 없음으로 직접 전도에 교회자원을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중심의 선교활동이 주류를 이루어온 결과 기독교의 모든 활동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행되어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교회라는 건물 속에 복음을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참하여 복음의 실천을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도는 교회라는 제한된 건물에서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섬김으로 해석되는 디아코니아적 봉사는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의 교제, 심부름하는 정도의 편협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의 행위인 것이다.

IV. 지역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교회

지역사회의 형성과 발전은 인류역사와 함께 해왔다. 인간이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없이는 행복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없다. 개인주의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갈구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동체는 머리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여 왔다. 많은 사회문제들의 해결은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즉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혁신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실현해나갈 주체형성 또한 ‘여기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의 참여와 새로운 관계맺음에 의해서이다. 공동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은 지역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학교, 병원, 행정기관, 교회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이 각기 제 나름대로의 기능수행에만 열심이고 지역사회 삶의 역동성과 관계성 등에 대해서 상호 관계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공동체는

교회 내에는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엄청난 인적 자원과 물질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되살기 위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생명을 발견하는 일에 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회는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실제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복지자원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의 한 생명을 위해 교회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 책임한계가 매우 취약한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이미 지역사회 내에 공공 민간 복지체제로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통합하여 교회의 자원봉사를 함께 실시할 때,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사실 가족, 정부, 민간단체의 복지혜택을 어떤 개인이 받는다고 해도 그 서비스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매우 빈약한 실정인 경우가 많다. 교회의 자원봉사는 이들을 위한 보조적 원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수요처기관, 자원봉사자,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에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 일정의 조율, 자원봉사 활동 욕구의 변화 분석 및 활동 욕구의 제도, 봉사활동끼리의 다차원적 발굴 노력, 구차원의 자원봉사 홍보 등 각각의 역할을 발전시켜가면서 활발한 정보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1. 개교회주의의 탈피와 네트워크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은 반드시 자기 교회 내에서 자기 교회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개교회주의적으로 생각할수록 소규모 교회나 개정 능력이 약하거나 재정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된 교인들은 교회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교회의 모든 활동에 하나 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사업에 관해서는 인근의 같은 교단의 교회끼리, 아니면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 교단 소속 교회가 협조하여 하나가 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교회는 지역사회 내의 다른 공동체와의 상호교류와 정보공유를 통해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욕구해결을 위하여 협조적 나아가서는 연합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교회들의 연합형태는 첫째 같은 교파에 소속된 지역교회들 간의 연합, 둘째 지역사회의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합(지역교구협의회, 셋째 지역공동협의회 등), 넷째 뜻을 같이 하는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협력하는 협의체, 다섯째 특정교회의 복지사업에 다른 교회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 여섯째 지역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과 연합, 일곱째 교회가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 병원, 학교, 행정기관 등과의 연합 등을 들 수 있다. 개교회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를 단위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신장될수록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이나 범위는 확장될 것이며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 각종 공동체와 네트워크 하면서 지역사회 정보, 사회복지기관, 교회의 시설, 교회의 인력, 교회의 대 지역사회 관련 재정의 공유 등 초교파적 교회연합활동은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문제해결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일치에도 바람직하다.

2.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확장

앞에서 자원봉사기본법에 명시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자원봉사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자신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노약자

등이 봉사의 대상인 것만은 아니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어떤 형태이든지 손길이 부족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모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봉사꺼리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봉사의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보람을 느끼는 그 이면에는 자신이 그들처럼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안도감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들의 불행이 나의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아픔과 외로움에서 건져내줄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자라나야 한다.

교회에서 실행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의 봉사활동 이외에 지역사회에는 많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꺼리가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봉사활동 꺼리가 나타나게 된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내부의 활동에 국한하지 말고, 각종 사회복지 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 지역문화를 유지보존하려는 활동, 각종 어린이 유해환경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지킴이 활동,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약, 생태환경보호 활동, 학습지도, 멘토링, 교회시설에 설치한 독서실, 공부방, 왕릉지킴이, 문화해설사 활동,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봉사활동, 취업모를 위한 유아 및 어린이 돌보미 봉사활동, 결손가정과의 결연, 지역사회내 무의탁 주민 돌봄 봉사, 노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등 지역사회에 눈을 돌려 보면 많은 자원봉사활동꺼리를 발견할 수 있다.

3. 각 교인 개인은사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한 사명자 혹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소유한 봉사의 사명이고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의 봉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많은 교인들의 재능과 경험을 측정하여 조직적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교인들의 재능과 경험 혹은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정한 재능이 없다면 그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노력봉사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도 전과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봉사꺼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원하는 교인들도 단순한 노력봉사 이외에 자신이 가진 전문성 혹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꺼리를 더 선호해가고 있다. 교회는 자원봉사 유형별로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고 그 부서에 맞는 은사를 가진 교인을 모집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교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교회내부적인 사업에 대한 활동 위주였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이거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 이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확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다양성과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인들이 지닌 재능과 경험과 할애시간 등을 측정하여 은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가 '전도와 봉사'라는 선교와 직결되고 복음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전도의 효능성과 타당성을 지역사회에 입증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과 자원봉사활동에의 배치 등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과 그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는 더욱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생태환경보호, 청소년 멘토링 등 어느 분야이든 간에 각 교인은 자기가 원하는 은사로 받은 달란트 분야에서 적어도 준전문직의 자원봉사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인력부족 현상이 만연되어있는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사업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준직원과 같은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신앙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교육 및 훈련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자 교인들은 신앙적 성숙과 자기개발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빌려 쓰는 지구”라는 환경보호관련 문구처럼, 현재의 우리는 미래세대로부터 지구를 빌려쓰는 것이다. 이 지구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으로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환경만이 아니라 사회환경도 서로 믿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듯이(약 2:14-26), 교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여 이웃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우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는 교인으로서 봉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강서교회연합자원봉사단 사례 발표

강서교구협의회 사무총장, 호서교회 담임목사 이 오 석 목사

1. 들어가는 말

1) 세계적인 자원봉사 추세

UN에서는 2001년을 세계자원복지(봉사)원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s 2001)로 정하고 세계적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사회봉사법(national service trust act)을 마련하여 청소년과 학교, 노인 및 전시민의 불런티어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불런티어활동을 교육의 필수과정으로 발전시키어 청소년의 50%이상(성인은 56%)이 불런티어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미국의 민주복지시민 의식이 발전되고,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힘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1999년 9월 18일(토)조선일보 9면과 2000년 1월 12일(수)자 조선일보, 8면참고).

자원복지활동추진국제협의회(IAVE)회장인 알렌(K. Allen)은 자원복지활동(voluntarism)을 a, 책임 있는 시민의 기본적 의무이며, b, 건전한 시민사회의 불가결의 요소이며, c,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일본JYVA 출판부(1998), 『2001년 국제불런티어의 해 핸드북』). 자원복지는 곧 세계적으로 선진 사회 구성의 필요 불가적 전제 요소가 되고 있다.

2) 대한민국도 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다.

대한민국도 2005. 08. 04에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사회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7669호)을 제정하였다.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지방자치별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고, 자격, 교육, 행정,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 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8조에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국가 재원의 지원 되고, 학교 직장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고, 자원봉사의 관리체계가 수립되었다.

3) 위기의 한국 교회도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여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복지를 위해 자원봉사하시는 존재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만드셨다(창1:27).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다(창12: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가나안 땅을 주셨다(출3:8). 예수님은 첫 설교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로 시작하셨고(마5장), 실제로 삶의 고통을 고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을 섬김의 봉사 사역(Diakonia)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는 마땅히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와 백성의 복된 삶을 이루는 봉사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계와 국가의 자원봉사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성서적 믿음 때문에 오직예수를 닮는 봉사의 모습으로, 지역주민(가치, 문화, 생활등) 속에 들어가 지역주민들과 삶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치유, 회복, 예방의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일을 지역교회들이 협력 연대 연합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 운동이 있어 이를 소개코자 한다.

2. 강서구 현황

서울시 강서구에는 약 430여개 교회가 있어 『강서교구협의회』를 이루고 있다. 강서교구협의회는 그 산하에 『강서구교회연합봉사단』을 결성하여 구청과 함께 구내의 어려운 구민을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강서구의 극빈자 현황:

강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 구민 58만명중 수급자 2만여명, 장애인 2만여명, 노인 2만5천여명, 한부모가정 등, 약 10만명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를 위해 강서구에서는 사회보장비를 40%를 넘게 사용되고 있으나 모든 것을 공공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민간자원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다. 강서구는 교회의 많은 자원봉사 손길을 부르고 있다.

2) 강서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되다. 강서구의 자원봉사가 발전하다.

강서구청은 구청 부속기관으로 2003년 6월24일 『강서구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2004년 1월 17일에 구 의회에서 『강서구 자원봉사 지원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다. 현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는 68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105,426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서구교회연합봉사단』은 『강서구자원봉사센터』와 2008월 3월에 협정을 맺어 강서구청장이 『강서구교회연합봉사단』의 명예단장이 되어 있다. 홍보 교육 배치 행정 관리의 사역을 상호 협력 하며 일하고 있다.

3. 교회연합자원봉사단 설립

강서교구협의회는 지난 태안 기름유출 재난 시 27개 교회(900여명)가 연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연합활동 통해 『강서구교회연합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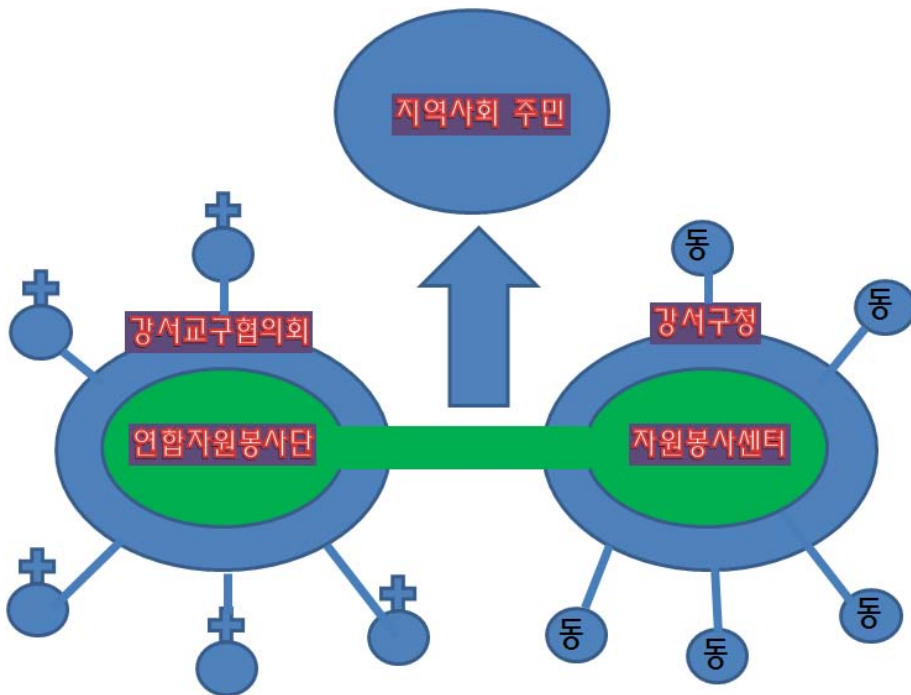
1) 취지와 목적

- 교회와 행정, 복지, 교육, 경제, 의료기관의 민관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
- 국가 재난 발생시 연합 긴급 구호 작업 지원
- 강서 지역 연합 자원봉사 활동 운영

- 개 교회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 봉사 인력 배출
- 개 교회 자원봉사 행정 지원 및 요보호 대상자 지원체계 확립
- 목적달성을 위한 모금사업 및 수익사업
- 국내·외 사회복지사업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2) 조직 구성

- ① 국가 행정기관과 협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10개 동 (방화공향동, 발산동, 화곡본동, 화곡1동, 화곡6동, 화곡8동, 염창동, 등촌1동, 등촌3동, 가양마곡동)
- ② 전문기관과 연대하여: 강서구자원봉사센터, (복) 선한이웃네트워크
- ③ 한국교회연합 기관들과 연대하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④ 강서교구협의회 부속으로
- 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4. 교회연합자원봉사단 사업

1) 홍보사업

- ① 소식지발간: 분기 별
- ② 언론홍보: 아름다운 동행과 협력 언론

2) 자원개발 사업

- ① 후원금 개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현금, 봉사 주일 현금,
- ② 후원자 관리: 후원자 봉사자 상담, 감사서신, 생일카드, 연말정산세금공제혜택 부여, 소식지 발간 발송, 후원자 및 자원봉사를 위한 밤 개최
- ③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자원봉사자 보험 관리 지원, 각종 인텐시브 제도 관리

3) 지역조직 사업

- ① 교회 순회 봉사 설명회: 수시로...
- ② 목회자 세미나, 포럼: 연 2회 봄, 가을

4) 교육 사업: 기획, 홍보, 모집, 교육, 자격수여, 배치, 관리, 평가, 재교육의 순환 과정

(교육 대상) 평신도 자원봉사 기초교육,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목회자 인식 교육

① <자원봉사 기초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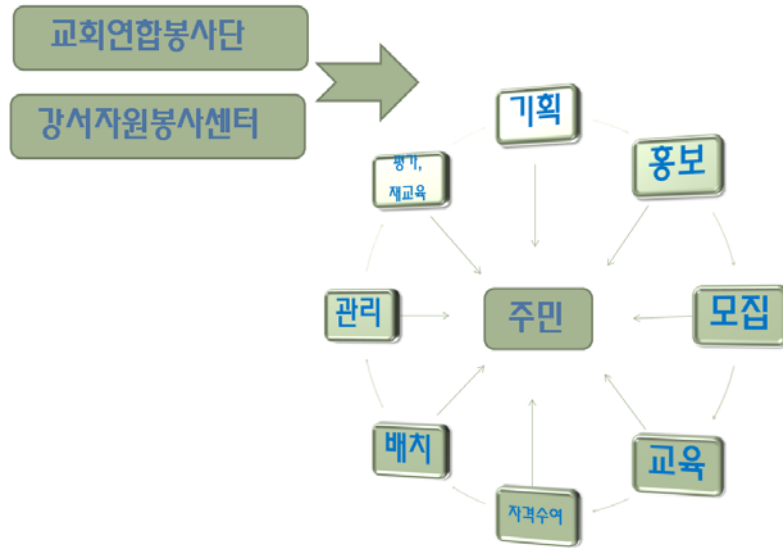
(일 시) 매년 봄 가을 2회 씩

(교과과목) 예수님의 사회봉사 (장경준박사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강서구현황과자원봉사이론 (박창순 : 강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 실제 (김영숙관장 : 복지법인 선한이웃네트워킹) 외

(교육실적)



1기 자원봉사자학교 (2008년 5월 11일 발대식) 공향교회, 공향성산교회, 대은교회, 발음교회, 사랑의 교회, 세계로교회, 시온교회, 신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오곡교회, 한우리교회, 화곡동교회, 호서교회 (계: 13개 244명)

2기 자원봉사자학교 (2008년 11월 26일) 호서교회: 17명, 영신교회: 23명, 등촌제일교회: 4명, 신광교회: 7명, 대중교회: 30명 (계: 5개 교회 81명)

3기 자원봉사자학교 (2009년 5월 31일) 화동교회: 31명, 공향성산: 18명, 발음교회: 84명, 오곡교회: 9명, 한우리: 2명, 호서교회: 1명, 예전교회: 1명, 행복꽃피는: 1명, 영광성결: 30명, 강남교회: 40명, 주사랑: 6명, 성현교회: 41명 (계: 12개 교회 264명)

4기 자원봉사자학교 (2009년 11월 26일) 3개 교회 42명

5기 자원봉사자학교(2010년 5월 17일) 강서교구협의회 목회자: 6명, 방주교회 : 27명, 기감강서동지방 목회자: 21명, 좋은교회 18명, 화곡성결교회 :53명, 햇불성결교회: 29명, 나눔이 목회자: 24명, 사랑의 교회 : 8명, 성도교회 : 21명, 영생교회 :139명, 한우리교회 : 5명 (계: 8개 교회 351명)

총계: 41개 교회 1092명

- ②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제2가나안농군학교와 연대하여 년 1회,
 (일 시) 매년 여름 1회 씩
 (교과과목) 예수님의 사회봉사 (장경준박사: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강서구현황과자원봉사이론 (박창순: 강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 실제 (김영숙관장: 복지법인 선한이웃네트워크)
 가나안농군학교 역사와 정신 (김범일교장: 가나안농군학교교장)
 가나안 개척자의 생활 (김범일: 가나안농군학교교장)
 자기기질발견 (김화년: 가나안농군학교 교육부장) 등

(교육실적)

- 1기 청소년자원봉사자학교(2009년 8월 1-3일), 8개 교회 중고등부 학생 128명
- 2기 청소년자원봉사자학교(2010년 7월 26-28일), 13개 교회 중고등부 학생 197명

5) 지원 사업: 배치 행정 관리

① 배치 영역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② 행정업무지원: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자원봉사자 보험 행정 지원,
- ③ 관리업무지원: 후원자 상담 관리, 후원금 연말정산세금공제혜택 관리,

6) 특화 사업:

- ① 사랑나눔 바자회: 연 1회 교회 연합 바자회, 농촌 직거래장 개설
- ②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 -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회와 연계

7) 긴급재난복구 구호:

- ① 태안기독교자원봉사: 재해 자연 복구 및 지역주민의정서, 문화, 공동체성, 경제회복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 봉사의 지속
- ② 강서수해지역 복구 사업: 및 대상자에게 자원봉사 및 지원금 제공

5. 평가

1) 지역에 유익

- ① 구 내의 타 기관 시설 및 각 동회와 연합체를 구성(교동협의회) 하다.
- ② 구내 지역 정보교환 및 공동행정관리 하다.
- ③ 연합후원개발사업(바자회, 음악회 등) 하다.
- ④ 연합 봉사 프로그램 실시하다.

2) 교회에 유익

- ① 개 교회 자원봉사단 설립에 지원을 받다.
- ② 자원봉사전문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재정, 전문 강사, 전문 교재
- ③ 다양한 전문봉사프로그램 지원을 받다.
- ④ 전문봉사 정보교환 및 컨설팅 수혜를 받다.

3) 자원봉사자에게 유익

- ① 자원봉사자 인증을 받고 봉사 수첩을 받는다.
- ② 자원봉사 실적의 집계를 받는다.
- 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받는다.
- ④ 자원봉사자 봉사 인텐시브를 받는다.

6. 과제

- 1) 목회자들의 복지 봉사에 대한 인식도를 증진 시키는 일
- 2)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전문성 지속성 증대 시키는 일
- 3) 봉사 사역의 지속적 개발 및 지원
- 4)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지속적 협력 관계
- 5) 인적 물적 재원의 부족

6. 나가는 말

자원봉사는 장차 한국 교회가 안고 해결해나가야 할 근본적 과제 중 하나이다. 기독교가 봉사 본질을 회복하여 성도들에게는 참 신앙 회복을 하고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 사회의 발전적인 자원봉사 체제에 걸 맞는 발전적인 기독교 자원봉사 활동이 되어야 한다. 강서교회자원봉사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영성과 함께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교회가 지역사회 행정기구와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동단위의 봉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연합한 자원봉사 체계와 사업까지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강서교회연합자원봉사단의 존재와 활동은 기독교 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된다고 본다. 전국에 십자가 세워진 모든 교회 마다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동리마다 교회와 교회가 지역연합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지역 행정과 함께 협력하며 주민들 섬겨 나가는 꿈을 꾸다.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날마다 칭송 받는 교회를 이루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21세기 한국 교회 부흥의 미래를 바라 본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지난 120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수많은 선진들의 삶을 기억한다. 그들의 땀과 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였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이 뿌려져 한국교회가 곳곳에 부흥할 수 있는 뿌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20년의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과 헌신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어두워지고 혼탁해진 세상 속에서 무지와 태만으로 현실에 안주해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물질 만능주의의 세파에 휩쓸려 사랑과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스스로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몸뚱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소명을 회복하여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 것이다.

먼저, 한국교회의 연합과 동역의 사역을 통해, 깨어지고 분열된 사회의 희망과 화합의 도구가 되며, 생명경시사상이 만연해진 사회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는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길 것이며, 선을 행하는 신실한 자세로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1.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따라 이 땅의 '사랑'의 통로가 될 것을 다짐한다.
2. 한국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곳에 연합하여 함께 동행할 것을 다짐한다.
3. 한국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곳에 연합하여 함께 동행할 것을 다짐한다.
3. 한국교회는 썩어져 가는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한다.

4.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5.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의 친구로서 사랑으로 열내 맺는 밑알이 되기를 다짐한다.

비전선언문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 계명을 안고, 인류와 한민족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꿈을 갖고, 교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모든 역량을 하나 되게 하였다.

한국교회는 모든 기독교인, 개 교회, 개 교단 그리고 교제가 연합하여 구체적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하는 국내외적인 미래 비전을 갖는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건강한 복지신학 위에 세우고, 모든 강단이 복지 지형적 말씀 선포에 힘쓰며, 모든 교회가 자원봉사자들과 복지 지도자를 양성 관리하며,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 체제를 갖춘다.

기독교 부산지역자원봉사단 사례 발표

수석총무, 백향목교회 담임 **최 구 영** 목사



Contents

총회 사회봉사부

1 기독교 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의 어제와 오늘



2 기독교 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의 임원구성



3 기독교 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의 활동내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

총회 사회봉사부

기독교 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의 설립배경

2007년 사상 초유의 태안 기름유출사건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기독교계 자원봉사자들의 훌륭한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 내에서 자원봉사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강원도에 이어서 부산지역에도 공식적인 총회사회봉사부 지침에 따라 2008년 8월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단 연혁

총회 사회봉사부



- 2008.08.04. : 기독교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 발족 제1회 임원구성
- 2008.09.11. : 기독교 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교육



- 2009.01.14. : 기독교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 '이웃사랑 김치나누기'
- 2009.02.17. :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제1차 보수교육
- 2009.08.07. : 총회사회부부산기독교 자원봉사단 지원
- 2009.08.11. : 수해지구 쓰레기 치우기 자원봉사
- 2009.09.17.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세미나
- 2009.10.31.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안전실천 연대 네트워크 가임



- 2010.01.01. : 제2회기 임원조직
- 2010.01.18. : 기독교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 '사랑의 쌀, 김치, 연탄나누기'
- 2010.03.23. :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제2차 보수교육



자원봉사단 임원구성 총회 사회봉사부

제1회기 임원구성(임원)

단 장	: 장기진 목사
부 단 장	: 이동렬 목사
부 단 장	: 최순길 목사
수석총무	: 최구영 목사
총 무	: 민영란 목사, 김석이 목사, 성낙경 장로
서 기	: 최기평 목사
부 서 기	: 이홍자 장로
회 계	: 윤재웅 장로
부 회 계	: 오세호 장로

자원봉사단 임원구성

총회 사회봉사부

제1회기 임원구성(자문위원)

한재엽 목사(부산노회장)

임대식 목사(부산동노회장)

이동혁 목사(부산남노회장)

윤익근 목사(총회사회봉사부장)

김종생 목사(전 총회사회봉사부 총무)

안홍철 목사(총회사회봉사부 간사)

자원봉사단 임원구성

총회 사회봉사부

제2회기 임원조직

단 장 : 장기진 목사

부단장 : 이동렬 목사, 정순길 목사, 김준 목사

수석총무 : 최구영 목사

총 무 : 김석이 목사, 오세호 장로

서 기 : 최기평 목사

부서기 : 장병원 목사, 류필훈 목사

회 계 : 윤재웅 집사

부회계 : 신동순 장로, 김상문 장로

간 사 : 강민구 목사, 조상식 장로



자원봉사단 설립이념

총회 사회봉사부

교육목표

봉사 교육
정서 교육
안전 교육
선교 교육



교훈

하나님의 창조물
지구 지키기
상생과 선교의
생활화



창세기1:26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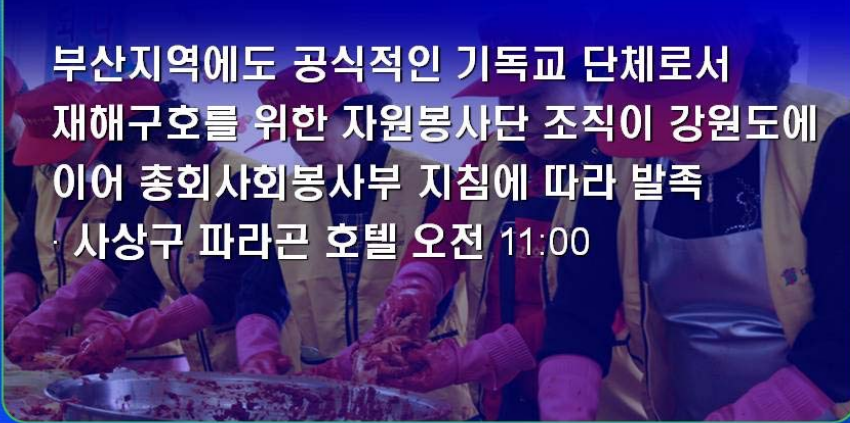


1. 자원봉사단 발족

총회 사회봉사부

2008년 8월 4일 재해구호 봉사단 발족

부산지역에도 공식적인 기독교 단체로서
재해구호를 위한 자원봉사단 조직이 강원도에
이어 총회사회봉사부 지침에 따라 발족
사상구 파라곤 호텔 오전 11:00



2. 자원봉사자 교육

 총회 사회봉사부

기독교 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교육

- 일 시 : 2008년 9월 11일(목) 오전10시~오후2시
- 장 소 : 동래중앙교회당 예배실
- 참석인원 : 부산노회 32명, 부산동노회 77명,
부산남노회105명, 기타 9명
- 강사 : 최무열 교수(부산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길 계장(부산시청 사회복지팀장)

3. 총회사회봉사부 지원내역

 총회 사회봉사부

총회사회봉사부 부산기독교자원봉사단 지원내역

- 일시 : 2009년 8월 7일
- 지원내역 : 피해복구지원 및 주민 위로비
섬김제일교회, 희망쉼터,
연산제일교회 신희숙 집사(장례금)
김봉겸 통장(연산6동),
부산노회 지역(합계18,000,000원)

4. 수해지구 피해복구 자원봉사 총회 사회봉사부

수해지구 쓰레기 치우기 자원봉사

- 일 시 : 2009년 8월 11일(화) 오전10시~오후3시
- 장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동 금련6길
- 참석인원 : 부산노회 18명, 부산동노회 30명,
부산남노회55명

4. 수해지구 피해복구 자원봉사 총회 사회봉사부



4. 수해지구 피해복구 자원봉사 총회 사회봉사부



4. 수해지구 피해복구 자원봉사 총회 사회봉사부



4. 수해지구 피해복구 자원봉사 총회 사회봉사부



4. 수해지구 피해복구 자원봉사 총회 사회봉사부



5.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총회 사회봉사부

기독교 부산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단



- 일 시 : 2009년 1월 14일(수) 오전8시
- 장 소 : 안락교회 (2포기 × 400박스)
- 참석인원 : 88명 참석

5.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총회 사회봉사부



6. 제1차 보수교육

총회 사회봉사부

자원봉사자 제1차 보수교육

- 일 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전10시
- 장 소 : 덕천교회당(장기진 담임목사)
- 강 사 : 이은애 팀장, 김상길 계장
- 참석인원 : 263명(부산노회40명, 부산동노회57명),
부산남노회(99명), 평북노회(67명)
- 특 전 : 2회 교육수료시 자원봉사자로 등록 및
자원봉사통장발급

6. 제1차 보수교육

총회 사회봉사부



7. 자원봉사 센터 세미나

총회 사회봉사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센터 세미나

- 일 시 : 2009년 9월 17일(목) 오전10시
- 장 소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대강당
- 참석자 : 200개 단체 실무진
약 80명 참석
- 주 제 : 소통의 화법

8. 안전실천연대 네트워크 가입

총회 사회봉사부

본 단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
센터로 네트워크 이적
안전실천 연대 네트워크 가입: 260명
- 일 시 : 2009년 10월 31일

9. 사랑의 쌀,김치,연탄나누기

총회 사회봉사부

자원봉사단 사랑의 쌀,김치,연탄나누기

- 일 시 : 2010년 1월 18일(월) 오전10시
- 장 소 : 덕천교회당 5층
- 참석자 : 230여명



9. 사랑의 쌀,김치,연탄나누기

총회 사회봉사부



9. 사랑의 쌀, 김치, 연탄나누기

총회 사회봉사부



9. 사랑의 쌀, 김치, 연탄나누기

총회 사회봉사부



10. 제2차 보수교육

총회 사회봉사부

자원봉사자 제2차 보수교육

- 일 시 : 2010년 3월 23일(화) 오전10시
- 장 소 : 산성교회당(허원구 담임목사)
- 강 사 : 최종정 교수, 이승렬 목사, 공은숙 팀장
- 참석인원 : 263명(부산노회40명, 부산동노회57명),
부산남노회(99명), 평북노회(67명)
- 특 전 : 2회 교육수료시 자원봉사자로 등록 및
자원봉사통장발급

10. 제2차 보수교육

총회 사회봉사부



10. 제2차 보수교육

총회 사회봉사부



12. 자원봉사단의 미래와 전망

총회 사회봉사부

정보화구축

- 홈페이지 제작(홍보, 모집)
-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킹 구축

성장과발전

- 정기적인 모임과 교육과정 개발
- 자발적인 참여문화 정착

봉사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나라
운동

마일리지 제도 정착

- 자원봉사를 위한 동기부여
-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연합과 선교

-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네트워킹 구축
- 선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개발

우리는 약속합니다

 총회 사회봉사부

우리의 봉사와 선교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넓게 더 멀리 확장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독교 부산지역(재해구호) 자원봉사단

